

동부권 도청 설치 · 농업정보센터 확대 · 개방형 시민당원제

<김용호 후보>

<박희승 후보>

<이용호 후보>

Report 격전지 후보자들 공약 점검 - ④남원임실순창

4·13 제20대 총선의 본선전이 시작됐다. '선거구 재획정', '다변 구도'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이번 선거는 그만큼 치열한 접전이 예상된다. 이에 본보에서는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후보들의 공약 소개를 통해 정당한 '정책전'을 유도하고자 각 후보별 정책공약을 중심으로 선거구별 구도와 변수를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임실·순창·남원(이하 임순남) 선거구는 제19대 총선에서 '남원시·순창군' 선거구에서 이번에 임실군이 추가된 선거구이다. 이 지역은 8명의 총선 후보자가 출마해 전북지역 10개 선거구 중 가장 많은 후보자가 출마한 지역으로 후보자로는 새누리당 김용호 후보(38),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후보(52),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56), 민주당 임종천 후보(47), 민중연합당 오은미 후보(50), 무소속 오철기 후보(47), 무소속 강동원 후보(63), 무소속 방경채 후보(59) 등이다.

이외에 조사한 여론조사(신뢰도 99%, 오차범위 1.4%p)에 따르면 후보별 지지도는 강동원 후보 24.9%, 이용호 후보 21.4%, 박희승 후보 15.7%, 김용호 후보 8.8%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을 하지 않거나 모르겠다는 의견도 25.1%를 차지하고 있어 이 지역 선거에서 선두그룹을 형성하고 있는 후보들의 정세 변화는 언제든지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정가 중론이다.



새누리 김용호 후보

남원-새만금 고속국도 건설
어르신 이동·교통권 보장
경영난 처한 서남대 정상화



더민주 박희승 후보

임실 옥정호 관광특구 조성
순창 장류기업 지역환원 입법화
남원 지리산 산악철도 조성



국민의당 이용호 후보

중기 유치·향토기업 육성
임실 옥정호 순환도로 개선
남원 문화창조 융복합 추진



무소속 강동원 후보

이명박 정권 비리 규명법 제정
지역 연계 휴양관광벨트 조성
농자재 가격상승 억제 지원

내걸어 표발을 일구고 있다. 박 후보의 337공약은, 3개지역(임실, 순창, 남원)의 3대 주요분야(농업 관련, 지역 경제 활성화, 복지)에 대한 7개 주요 공약을 함축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박 후보는 ▲농업정보종합센터 확대 등 농촌 살리기 ▲지리산 산악철도 건설 및 지역특화 융·복합사업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교육혁신사업 지원과 사람중심 친화도시 지원사업을 통한 인재육성·복지증진의 복지 정책 등이 그의 주요 정책 공약이다.

또한 박 후보는 임실은 국민안전 교육을 위한 테마파크 조성, 옥정호·섬진강 권역 친환경 관광특구 조성, 임실치즈 박물관 건립 등을 하겠다는 복안이며 순창은 세계소스산업 거점지구 조성과 장류·치즈 등에 사용기계의 지역 환원을 입법화해 기업들이 순창에 제투자(세금과 기금조성 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이어 남원은 남원 국제조각 Festival을 유치하고 4계절 생태관광형 지리산 산악철도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 후보는 임실은 국민안전 교육을 위한 테마파크 조성, 옥정호·섬진강 권역 친환경 관광특구 조성, 임실치즈 박물관 건립 등을 하겠다는 복안이며 순창은 세계소스산업 거점지구 조성과 장류·치즈 등에 사용기계의 지역 환원을 입법화해 기업들이 순창에 제투자(세금과 기금조성 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이어 남원은 남원 국제조각 Festival을 유치하고 4계절 생태관광형 지리산 산악철도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 후보는 임실은 국민안전 교육을 위한 테마파크 조성, 옥정호·섬진강 권역 친환경 관광특구 조성, 임실치즈 박물관 건립 등을 하겠다는 복안이며 순창은 세계소스산업 거점지구 조성과 장류·치즈 등에 사용기계의 지역 환원을 입법화해 기업들이 순창에 제투자(세금과 기금조성 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이어 남원은 남원 국제조각 Festival을 유치하고 4계절 생태관광형 지리산 산악철도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임순남 지역은 강동원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에서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결정함으로써 현재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드러난 구도는 강동원 후보와 이용호 후보가 오차범위 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 뒤를 박희승 후보와 김용호 후보가 추격하고 있는 모양새다. 임종천 후보, 오은미 후보, 오철기 후보, 방경채 후보 등도 낮은 지지도 속에서 악전고투하며 급매지를 노리고 있다.

이외에 조사한 여론조사(신뢰도 99%, 오차범위 1.4%p)에 따르면 후보별 지지도는 강동원 후보 24.9%, 이용호 후보 21.4%, 박희승 후보 15.7%, 김용호 후보 8.8% 등의 적합도를 받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또한 박 후보는 임실은 국민안전 교육을 위한 테마파크 조성, 옥정호·섬진강 권역 친환경 관광특구 조성, 임실치즈 박물관 건립 등을 하겠다는 복안이며 순창은 세계소스산업 거점지구 조성과 장류·치즈 등에 사용기계의 지역 환원을 입법화해 기업들이 순창에 제투자(세금과 기금조성 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이어 남원은 남원 국제조각 Festival을 유치하고 4계절 생태관광형 지리산 산악철도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 후보는 임실은 국민안전 교육을 위한 테마파크 조성, 옥정호·섬진강 권역 친환경 관광특구 조성, 임실치즈 박물관 건립 등을 하겠다는 복안이며 순창은 세계소스산업 거점지구 조성과 장류·치즈 등에 사용기계의 지역 환원을 입법화해 기업들이 순창에 제투자(세금과 기금조성 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이어 남원은 남원 국제조각 Festival을 유치하고 4계절 생태관광형 지리산 산악철도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 후보는 임실은 국민안전 교육을 위한 테마파크 조성, 옥정호·섬진강 권역 친환경 관광특구 조성, 임실치즈 박물관 건립 등을 하겠다는 복안이며 순창은 세계소스산업 거점지구 조성과 장류·치즈 등에 사용기계의 지역 환원을 입법화해 기업들이 순창에 제투자(세금과 기금조성 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이어 남원은 남원 국제조각 Festival을 유치하고 4계절 생태관광형 지리산 산악철도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 후보는 임실은 국민안전 교육을 위한 테마파크 조성, 옥정호·섬진강 권역 친환경 관광특구 조성, 임실치즈 박물관 건립 등을 하겠다는 복안이며 순창은 세계소스산업 거점지구 조성과 장류·치즈 등에 사용기계의 지역 환원을 입법화해 기업들이 순창에 제투자(세금과 기금조성 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다. 이어 남원은 남원 국제조각 Festival을 유치하고 4계절 생태관광형 지리산 산악철도를 조성해 지역경제를 일으키겠다고 약속했다.

이러한 선거구도는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자료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중선위에 등록된 여론조사 중 지난 3월24일 강동원 후보가 공감리서치에 의뢰해 조사한 여론조사(신뢰도 95%, 오차범위 ±2.6%p)는 제20대 총선 국회의원 적합도에서 강동원 후보 29.3%, 이용호 후보 26.2%, 박희승 후보 11.1%, 김용호 후보 8.8% 등의 적합도를 받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이외에 조사한 여론조사(신뢰도 99%, 오차범위 1.4%p)에 따르면 후보별 지지도는 강동원 후보 24.9%, 이용호 후보 21.4%, 박희승 후보 15.7%, 김용호 후보 8.8% 등의 적합도를 받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이외에 조사한 여론조사(신뢰도 99%, 오차범위 1.4%p)에 따르면 후보별 지지도는 강동원 후보 24.9%, 이용호 후보 21.4%, 박희승 후보 15.7%, 김용호 후보 8.8% 등의 적합도를 받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이외에 조사한 여론조사(신뢰도 99%, 오차범위 1.4%p)에 따르면 후보별 지지도는 강동원 후보 24.9%, 이용호 후보 21.4%, 박희승 후보 15.7%, 김용호 후보 8.8% 등의 적합도를 받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이외에 조사한 여론조사(신뢰도 99%, 오차범위 1.4%p)에 따르면 후보별 지지도는 강동원 후보 24.9%, 이용호 후보 21.4%, 박희승 후보 15.7%, 김용호 후보 8.8% 등의 적합도를 받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이외에 조사한 여론조사(신뢰도 99%, 오차범위 1.4%p)에 따르면 후보별 지지도는 강동원 후보 24.9%, 이용호 후보 21.4%, 박희승 후보 15.7%, 김용호 후보 8.8% 등의 적합도를 받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사(4)뿐 사(4)뿐 저를 선택해 주신다면” 지난 2일 제20대 총선 김재·부안선거구에 출마한 정의당 강상구 후보가 가리의 시민들에게 인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더민주 '더웠유세단', 최형재 후보 지원 유세

정청래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의 더웠유세단은 2일 효자동에 위치한 상산고등학교 사거리에서 “최형재 후보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주식으로 치면 저평가 우량주이다”라며 최 후보에 대한 지원 유세를 펼쳤다. 정청래 의원은 “최형재 후보는 당당히 경선을 통해 현역의원을 누르고 선출된 경쟁력있는 후보”라며 “이곳 전주부터 2번으로 대동단결해 정권교체를 이루고 변화의 핵으로 최형재 후보”를 써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별취재반

“진짜배기 정치인”을 걸러내라

도내 정가 “지역출신 현역의원 키워야 전북 뭉치 키우기 가능”
“나이 등에 상관 없이 능력을 우선적으로 봐야한다”는 의견도

총선을 10여일 남겨두고 진짜 정치인을 걸러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일부 선거구의 경우 '현역의원 역할론'과 '현역의원 몰가이론'이라는 상반된 가치가 대립구도를 형성해 선거권을 이끌 경쟁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고령이라도 능력우주론' 중심으로 인물을 선택해야 한다는 신규세대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다. 현재 현역의원으로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3인의 김준진 후보(김제, 부안)를 비롯해 재선 이춘석 후보(익산갑), 초선 김윤덕 후보(전주갑), 김성주 후보(전주병)가, 국민의당은 재선인 유성영 후보(정읍고창)와 초선 김관영 후보(군산)가, 무소속으로는 강동원 후보(남원임실순창) 등 7명이다. 이들은 지역출신 현역의원들을 육성해야 중앙에서 전북의 뭉치를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지역 정가 역시 재선 이상은 꽤야 정치 영향력 확대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수가 높을수록 탄탄한 인맥을 바탕으로 도 발전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초선 의원으로는 한계가 따른다는 인식으로 전북도 영남차별 3선 이상의 국회의원을 더 많이 배출해야 유리하다는 논리다. 반면에 정치신인들은 정치권의 쇠신바람에 걸맞게 새로운 정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령이라도 능력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컨대 제20대 총선에서 70대를 넘긴 후보는 무소속 유종근(전주 갑. 72)가 유일하다. /특별취재반

지역 정가 역시 재선 이상은 꽤야 정치 영향력 확대가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수가 높을수록 탄탄한 인맥을 바탕으로 도 발전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초선 의원으로는 한계가 따른다는 인식으로 전북도 영남차별 3선 이상의 국회의원을 더 많이 배출해야 유리하다는 논리다. 반면에 정치신인들은 정치권의 쇠신바람에 걸맞게 새로운 정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령이라도 능력을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예컨대 제20대 총선에서 70대를 넘긴 후보는 무소속 유종근(전주 갑. 72)가 유일하다. /특별취재반

이외에 조사한 여론조사(신뢰도 99%, 오차범위 1.4%p)에 따르면 후보별 지지도는 강동원 후보 24.9%, 이용호 후보 21.4%, 박희승 후보 15.7%, 김용호 후보 8.8% 등의 적합도를 받고 있다고 알리고 있다.

정의당 천호선 공동선대위원장 오늘 군산시 조준호 후보 지원 유세

천호선 정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오는 4일 군산을 방문해 조준호 후보 지원 유세를 시작한다. 이날 천 위원장과 오현숙(도당위원장) 비례대표 후보는 군산 수송동 롯데마트 사거리(수송동 833)에서 합동유세를 통해 지역민들의 표심을 모을 계획이다. 이후에는 군산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주민들을 만나 민원을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정의당 전북도당은 6일, 전북대학교 구정문 앞에서 오 후보와 윤소하 비례대표 후보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투표 참여 독려와 사전투표와 정당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특별취재반

임정엽 “당신의 뜻 이어받아...” 문자메시지에 박민수 의원 “나와 교감으로 이뤄진거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민수 의원이 국민의당 임정엽 후보측(완주, 진안, 무주, 장수)이 보낸 문자메시지에 발끈했다. 임정엽 후보측은 지난 1일 오전 9시 30분경 장수군민 일부에게 “더불어민주당 박민수 국회의원과 멋진 승부를 펼치고자 했으나 공천과정에서 섞이지 않은 외적 요인으로 어렵게 선출을 마신 박 의원님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보낸다”고 전송했다. 또 “각별한 장수사랑을 실천한 박민수 의원의 뜻을 이어받아 저 임정엽이 장수 군민 여러분을 위해 일하겠다”고 덧붙였다. 박민수 의원은 이와관련 “일 후보 캠프의 문자메시지가 박 의원의 교감으로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당이 다른 만큼 그럴 이유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자메시지 내용으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당 임 후보가 보낸 메시지를 언론에 공개한다. 앞으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특별취재반

도내 총선 선거인수 151만9천여명

제20대 총선 전북지역 국회의원선거 선거인수가 151만9,273명으로 확정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 실시하는 총선 선거인수는 전체 인구의 81.3%인 총 151만9,273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는 지난 제19대 국회의원선거 당시 유권자수 147만3,329명보다 4만2,948명(2.9%)이 증가한 수치다. 성별로는 남자가 74만3,888명, 여자 77만 8,885명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만 19세 2만5,662명(1.7%), 20대 21만7,849명(14.3%), 30대 22만9,573명(15.1%), 40대 29만8,429명(19.6%), 50대 29만7,178명(19.6%), 60대 이상이 45만586명(29.7%)이다. 지역별로는 전주시 완산구의 선거인수가 31만7,19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익산시 24만4,638명, 군산시 22만3,276명 등이며 장수군은 1만 9,942명으로 가장 적었다. /특별취재반